

가정관리학과 명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 연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명 자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기 옥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급진적 변화와 함께 학문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왔다. 가정학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60년대부터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가정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확대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생활분야 중 의류학과영역, 식품영양학과영역은 그 연구대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대부분의 대학이 대상별로 전공학과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나머지 영역, 즉 주거학, 아동학, 가족학, 가정관리학, 가정경제학 분야는 가정관리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학과로 운영되어 왔다.

여러 영역을 통합한 가정관리학과는 운영은 가정관리학과와 내용구성의 검토, 전공분리 내지 분과나 명칭변경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정관리학과는 설립 당시부터 이미 두 학과 이상의 특성을 지니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공의 분리운영, 분과명칭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가정대학설립시기부터 안고 있었다(서울대학교 가

정대학 이십년사, 1989, p33-34). 이처럼 가정관리학과와 교과과정은 지나치게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전문성이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은 졸업생의 취업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사실상 가정대학 설립과정에서부터 분과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가정관리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명칭변경 이전에 영역별 전문성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학부수준에서의 지나친 학과세분화를 지양하고 오히려 세분화된 학과의 통합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가정관리학과와 전공영역에 따른 科의 분리신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전공영역을 가능한 수용, 인정하면서 학문의 발전적 추세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의 명칭 모색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가정관리학과와 교과내용과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즉 현재의 학과명칭인 가정관리학과는 모든 전공영역을 함축성있게 나타내고 있지 않아, 가정관리학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식도가 낮으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과 명칭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본 연구는 1994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과제로서 1994년 6월 24일 제 17 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총회에서 발표되었음.

은 것이다. 특히 학문의 전문화 추세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관리학과 지원을 기피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현실점에서, 가정관리학과가 살아 남으려면 직업에서의 전문적 능력과 가정관리 전공자의 사회적 공헌이 요구된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오늘날 가정관리학과에서도 미래지향적 연구와 함께, 이에 적절한 명칭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관리학과와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를 위해 각 대학마다 그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1988학년도부터 소비자·아동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후 지방의 몇몇 대학에서는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을 그대로 두고 전공분리를 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가정관리학과라는 명칭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경향이다(유영주, 이기춘, 문숙재, 1991).

따라서 학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정관리학과와 명칭변경이나 내용구성, 학과운영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둘째,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에 관해 실증조사함으로써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셋째, 각 대학의 현행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과 재직교수의 전공분야를 고려할 때 학과명으로 적합한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신분, 전공, 연령, 학교소재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

는가 분석하며 가정관리학과 구성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3. 관련연구의 고찰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관련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명옥, 유영주(1980)는 사회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가정관리학 교육 목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혁신적으로 편성하고 이에 적합한 과목명칭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 4학년 재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 이전에 과의 전공분리가 시급하고, 과의 분리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 편성과 그에 적합한 명칭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분야와 주거학을 각각 독립학과로 분리시키고, 가정관리학은 가족발달분야를 공동기초과목으로 하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소비자경제분야, 관리과정분야, 주거환경분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학과의 명칭은 「가족환경학과」로 합이 타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이후 대한가정학회(1982) 주관하에 이루어진 가정학 계열학과의 교과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가정관리학분야를 아동 및 가족학분야, 주거환경분야, 가정경영학분야 등 3분야로 분리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를 통하여 임정빈(1990)은 가정관리학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학과의 명칭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함을 지적하고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현 체제하에서라도 학과의 명칭을 「가정경영학과」로 변경하고 교과목 명칭인 「가정관리학」은 「가정자원관리학」으로 하여 그 구성과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 기업경영이나 가정경영이 동일한 차원이므로 기업경영의 이론이나 기법은 가정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육선화(1990)는 기업경영을 가정경영에 적용시키는데 대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정경영학과로의 명칭변경은 가정관리학 입장에 혼동만 초래할 뿐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설립당시부터 분과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가정관리학과를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물적자원중심의 학과와 인적자원중심의 학과로 학과를 재편성하여 분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영주, 이기춘, 문숙재(1991)가 대학교육협의회 지원으로 실시한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학과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학과명칭을 변경할 경우, 「가족환경학과」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족생태학과와 가족자원관리학과를 건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환경학과로 할 경우 ○○전공, ○○전공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전공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관리, 소비자, 가족분야의 내용을 포괄하는 학과 명칭으로 가정관리학과는 적절치 못하고, 세분야를 포괄하는 명칭모색은 불가능하며 분과가 시급한 시점이라 했다. 학문의 체계상 아동·가족분야와 소비자·관리 분야로 분리되어야 하겠으나, 분과가 여의치 못할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학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관리학과와 교과내용과 명칭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꾸준한 연구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사회적 요구나 학문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신분, 전공, 연령, 학교소재지 등 응답자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4문항, 가정관리학과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4문항, 15개의 새로운 학과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명칭 변경시 반대이유와 찬성이유의 문항은 3개를 순위를 주어 선택하도록 작성되었고, 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학과 명칭에 대한 견해는 5개를 순위를 주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는 본 학회 상임이사 7인으로부터 검증받았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조사에 앞서 가정관리학과 교수 12인, 4학년 재학생 9인, 대학원생 10인, 취업졸업생 8인, 미취업 졸업생 8인 등 총 47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전국 37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중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학과명칭을 변경하였고, 충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신설학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문지는 가정관리학과 학과장에게 연구 취지와 조사방법을 안내하는 서신 및 반송봉투와 함께 우송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정관리학과 재직교수,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취업 졸업생, 미취업 졸업생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일 질문지를 배부한 후 학과에서 수집하여 반송 봉투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본 학회의 상임이사들이 각각 안면이 있는 학교에 조사 협조를 의뢰하고 반송이 늦은 학교에는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추후 협조를 요청한 결과 33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에서 총 779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분석이 불가능하게 부실기재된 질문지가 발견되지 않아 회수된 질문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교차분석을 하였다.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개칭여부와 명칭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3개까지 순위를 주도록 되어있는 명칭변경 찬성이유와 반대이유 문항은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주어 Recode한 후 각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¹⁾. 5개까지 순위를 주도록 되어있는 새로운 학과명 문항은 1순위에 5점, 2순

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주어 Recode한 후 각 학과명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순위없이 여러항목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집 단	빈 도*	백분율
신 분	교 수	108	14.0
	재학생	378	48.9
	대학원재학	112	14.5
	취업졸업생	94	12.2
	미취업졸업생	81	10.5
	가족학	107	14.2
전 공**	아동학	76	10.1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66	8.7
	가정관리학	221	29.3
	주거학	85	11.3
	전공구분없음	200	26.5
연 령	20-29세	639	82.7
	30-39세	81	10.5
	40-49세	42	5.4
	50-59세	11	1.4
학교소재지	서 울	211	27.2
	직할시	336	43.4
	지방소도시	203	26.2
	군읍면***	25	3.2
계	779	100.0	

*무응답으로 인하여 변수별로 총 빈도수가 차이를 보임.

**신분에 따른 전공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전공구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재학생, 일부 학교의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이 가족학 또는 가정관리학의 전공에 포함되어 있었음. 본 문항에 있는 가정관리학 전공은 협의의 가정관리학 전공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재 가정관리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경우 학과명을 본인의 전공으로 생각해서 응답한 결과라고 여겨짐.

***군읍면 소재지의 응답자가 3.2%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이를 지방소도시에 포함시킴.

1) 순위를 응답한 문항의 경우 1차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1차 분석과 Recode한 자료의 분석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해석과 집단간 비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Recode한 자료분석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응답한 경우는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고 1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는 1순위로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변경 찬성이유, 반대이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과명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한 후 Scheff의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통계처리는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rogram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가정관리학과의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는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15.1%가 변경에 반대하고 있었고 84.9%가 명칭변경을 찬성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χ^2 검증결과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이유

가정관리학과의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찬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²⁾에 나타나 있다. 학과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모든 배경변수의 거의 모든 집단에서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를 지적하고 있다. 취업한 졸업생의 경우는 '학과내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현행 명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나쁜 것'도 명칭변경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이유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은 대학의 문이 좁은 현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항목과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표 2.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 : %

변수	집단	찬성	반대	χ^2
신분	교수	87(11.4)	16(2.1)	1.37
	재학생	320(42.0)	55(7.2)	
	대학원재학	96(12.6)	14(1.8)	
	취업졸업생	78(10.2)	15(2.0)	
	미취업졸업생	66(8.7)	15(2.0)	
전공	가족학	87(11.7)	18(2.4)	3.25
	아동학	59(7.9)	14(1.9)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55(7.4)	7(0.9)	
	가정관리학	184(24.7)	36(4.8)	
	주거학	72(9.7)	13(1.7)	
연령	전공구분없음	174(23.4)	25(3.4)	5.90
	20-29세	537(70.3)	98(12.8)	
	30-39세	69(9.0)	9(1.2)	
	40-49세	36(4.7)	5(0.7)	
학교소재지	50-59세	6(0.8)	4(0.5)	2.87
	서울	183(24.0)	25(3.3)	
	직할시	272(35.6)	57(7.5)	
계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194(25.4)	33(4.3)	116(15.1)
	계	651(84.9)	116(15.1)	

여는 대학원 재학생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현행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항목은 역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50~59세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20~29세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가정관리학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 관리라는 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 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 가정관리분야의 협의 개념과 혼동되므로 학과

2) 전체 응답자의 산술평균값은 빈도수가 많은 집단의 값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평균을 나타내는 모든 분석에서 응답자 배경변수 중 신분변수의 각 집단의 평균값을 합쳐서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명칭으로 부적절하다.

-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
- 가정이라는 명칭이 남학생 진학에 장애가 된다.
- 배우는 내용이 가정이라는 단위에 국한된다.
- 학문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 가정관리가 집에 살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3.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응답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표 4) 전체적으로 '현행명칭이 가정관리학에 포함된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적합한 명칭이 없다', '새로운 명칭을 할 경우 혼란이 온다',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생의 반대 이유가

표 3.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찬성이유

		찬 성 이 유 ^{a)}														
		(1)			(2)			(3)			(4)			(5)		
변 수	집 단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신 분	교 수	1.94			1.76		a	1.84			2.46		ab	1.89		
	재학생	1.84			1.69		b	2.11			2.24		ab	2.03		
	대학원재학	1.66	2.60		1.21	4.13	c	2.08	0.96		2.54	5.00	a	2.13	2.40	
	취업졸업생	2.10			1.73		abc	1.96			2.05		b	2.14		
	미취업졸업생	2.00			1.84		abc	2.04			2.19		ab	1.68		
전 공	가족학	1.68			1.67			2.24			2.41			1.86		
	아동학	1.81			1.77			2.22			2.30			2.07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1.92	1.51		1.52	0.82		1.85	1.44		2.46	1.52		2.17	0.98	
	가정관리학	1.96			1.54			2.07			2.18			2.01		
	주거학	1.80			1.79			1.90			2.35			2.19		
	전공구분없음	2.01			1.69			2.03			2.26			1.94		
연 령	20-29세	1.89			1.64			2.08			2.25			2.00		
	30-39세	1.79	0.83		1.61	0.58		1.77	1.65		2.49	3.21		2.14	1.19	
	40-49세	2.03			1.76			2.20			2.44			1.69		
	50-59세	2.25			2.00			1.67			3.00			1.67		
학교소재지	서 울	1.89			1.66			2.10			2.23			2.14		
	직할시	1.89	0.02		1.64	0.05		2.04	0.22		2.36	1.58		1.95	1.42	
	지방소도시	1.90			1.68			2.04			2.25			1.98		
	및 군읍면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1.92(4)			1.65(5)			2.01(2)			2.30(1)			1.97(3)		

굵은글씨 :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p<.05 **p<.01

a)(1) 취업에 장애가 된다

(2)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

(3)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

(4)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5) 학과내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특히 두드러진다. 학교소재지에 따라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데 Scheff 검증 결과 직할시 소재학교의 응답자와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소재학교의 응답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직할시 소재학교의 응답자가 이 이유를 명칭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바꿀만한 논리적 이유가 부족하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 '일시적 타협이다', '가장 여성스러운 과를 알릴 수 없다', '명칭만 변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관리학의 본질 해석이 명칭변경보다

더욱 중요하다' 등을 일부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었다.

4. 학과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가정관리학과와 학과명칭을 변경할 경우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표 5)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이었다. 두 번째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목이 지적되었고, '전국의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전공분리'와 '새로운 명칭의 홍보'를 보완점으로 지적한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반대이유

		반 대 이 유 ^{a)}														
		(1)			(2)			(3)			(4)			(5)		
변 수	집 단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평균	F값	Scheffé
신 분	교 수	2.27			2.44			1.85			2.18			2.00		
	재학생	2.23			2.56			1.96			1.87			1.26		
	대학원재학	1.75	0.87		2.22	1.48		1.92	0.72		2.30	0.85		2.50	3.78	
	취업졸업생	2.50			1.85			2.42			1.90			2.00		
	미취업졸업생	2.00			2.30			1.86			2.11			2.00		
전 공	가족학	2.00			2.25			1.85			2.07			3.00		
	아동학	2.20			2.36			1.75			2.42			1.50	2.48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2.33	1.11		2.33	0.70		2.40	1.02		2.00	1.48		1.33	2.48	
	가정관리학	2.47			2.25			2.09			1.80			1.54		
	주거학	2.42			2.71			1.50			1.70			2.33		
	전공구분없음	1.75			2.60			2.00			2.17			1.62		
연 령	20-29세	2.18			2.40			2.00			1.98			1.73		
	30-39세	2.50	0.31		2.50	0.56		1.67	0.46		2.10	0.95		2.00	0.10	
	40-49세	2.00			2.33			1.67			3.00					
	50-59세	2.00			3.00			2.00			1.50					
학교소재지	서 울	2.00		ab	2.14			2.06			2.00			2.00		
	직할시	2.61	6.73	a	2.48	1.14		1.83	0.53		2.06	0.05		1.68	0.41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1.75		b	2.52			2.00			2.00			1.71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2.15(2)			2.27(1)			2.00(4)			2.07(3)			1.95(5)		

주: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p<.05 **p<.01

a) (1)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2) 현재 명칭이 가정관리학과에 포함된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다.

(3) 새로운 명칭을 할 경우 혼란이 온다.

(4) 적합한 명칭이 없다.

(5)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

χ^2 -검증 결과 배경변수에 따라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변수의 집단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재학생과 미취업졸업생, 가정관리학 전공자와 전공구분이 없는 응답자, 20~29세의 응답자, 직할시와 지방도시 소재 학교의 응답자들이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교수, 가족학·아동학·소비자학 전공 응답자, 4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항목을 명칭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과명칭의 변경은 취업관련

교과목의 개발과 현행 가정관리학과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새로운 학과명칭에 대한 견해

가정관리학과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학과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새로운 학과명을 제시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명을 5개까지 순위를 주어 응답하게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학과명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생활과학과,

표 5.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보완되어야 할 사항 ^{a)}					χ ²
		(1)	(2)	(3)	(4)	(5)	
변수	집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분	교수	65 (9.7)	30 (4.5)	50 (7.5)	44 (6.6)	60 (9.0)	13.90
	재학생	188 (28.1)	146 (21.9)	172 (25.7)	165 (24.7)	233 (34.9)	
	대학원재학	56 (8.4)	42 (6.3)	66 (9.9)	64 (9.6)	58 (8.7)	
	취업졸업생	42 (6.3)	30 (4.5)	51 (7.6)	48 (7.2)	50 (7.5)	
	미취업졸업생	38 (5.7)	24 (3.6)	37 (5.5)	34 (5.1)	41 (6.1)	
전공	가족학	63 (9.6)	30 (4.6)	51 (7.8)	53 (8.1)	59 (9.0)	27.79
	아동학	42 (6.4)	24 (3.7)	39 (6.0)	25 (3.8)	37 (5.7)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40 (6.1)	27 (4.1)	32 (4.9)	30 (4.6)	32 (4.9)	
	가정관리학	109 (16.7)	80 (12.3)	88 (13.5)	96 (14.7)	119 (18.2)	
	주거학	35 (5.4)	20 (3.1)	55 (8.4)	39 (6.0)	48 (7.4)	
	전공구분없음	93 (14.2)	83 (12.7)	103 (15.8)	103 (15.8)	134 (20.5)	
연령	20-29세	310 (46.5)	235 (35.2)	308 (46.2)	296 (44.4)	366 (54.9)	15.08
	30-39세	42 (6.3)	20 (3.0)	44 (6.6)	40 (6.0)	42 (6.3)	
	40-49세	28 (4.2)	12 (1.8)	22 (3.3)	13 (1.9)	28 (4.2)	
	50-59세	8 (1.2)	5 (0.7)	1 (0.1)	5 (0.7)	6 (0.9)	
학교소재지	서울	119 (17.8)	67 (10.0)	111 (11.6)	125 (18.7)	121 (18.1)	11.93
	직할시	168 (25.1)	123 (18.4)	158 (33.6)	129 (19.3)	188 (28.1)	
	지방수도시 및 군읍면	102 (15.2)	82 (12.2)	108 (16.1)	100 (14.9)	134 (20.0)	
	총계	392 (21.2)	273 (14.8)	380 (20.6)	357 (19.3)	446 (24.1)	

굵은글씨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

*multiple response처리로 인하여 빈도수가 증가되었음

- a) (1)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2) 전국의 학과 명칭이 통일
 (3) 전공분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
 (4)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

- (1) 전국의 학과 명칭이 통일
 (2) 새로운 명칭을 홍보

생활경영학과, 소비자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와 순서로 2, 3, 4, 5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환경학과, 가정복지학과, 자원경영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생활관리학과는 각각 15위, 14위, 13위, 12위, 11위를 나타내어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학과명칭들이었다.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인 학과명은 '생활과학과'로서 이 학과명에 대한 선호도는 교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는 '생활관리학과'와 '인간생태학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학과'의 경우 가정관리학이나 가족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가 높고 아동학이나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생태학과'의 경우 아동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가 다른 전공의 응답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명칭은 '가정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 '생활과학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학과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50~59세의 응답자이고 20~29세의 응답자는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복지학과'의 경우는 40~49세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20~29세의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과학과'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9세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학교소재지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명칭은 ‘가족자원관리학과’, ‘가정환경학과’, ‘인간생태학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관리학과’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학교의 응답자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학과’의 경우는 지방도시 및 군읍면 소재 학교의 응답자가 타지역 소재 학교의 응답자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생태학과’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학교 응답자, 직할시 소재 학교 응답자, 지방도시 및 군읍면 소재 학교 응답자의 순서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학과명칭의 경우는 배경변수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시된 학과명칭을 첫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으로 시작되는 명칭

가정학과	가정공학과
가정환경복지학과	가정자원관리학과
가정교육학과	
- ② 가족으로 시작되는 명칭

가족발달학과	가족생활학과
가족 및 소비자학과	
- ③ 소비자로 시작되는 명칭

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복지학과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경영학과	
- ④ 인간으로 시작되는 명칭

인간환경학과	인간자원학과
인간생태복지학과	인간생활관리학과
인간발달학과	인간생활학과
- ⑤ 생활로 시작되는 명칭

생활자원경영학과	생활환경학과
생활자원관리학과	생활문제연구학과
- ⑥ 주거로 시작되는 명칭

주거 아동학과	주거생활학과
주거관리학과	주거환경학과
주생활학과	주거경제학과
주거소비자학과	
- ⑦ 기 타

실내디자인학과	전통가정학과
---------	--------

아동생태학과

이들 학과명칭의 특징은 가정, 가족, 소비자, 인간, 생활, 주거로 시작되는 명칭이 많았고 후반부에는 자원, 환경, 복지, 생태, 생활관리, 경영 등을 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어를 중심으로 학과의 목표와 성격에 맞추어 학과명칭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V. 요약 및 제언

현행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33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재직교수,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취업 혹은 미취업 졸업생을 포함하여 총 77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84.9%가 현행 가정관리학과 명칭을 변경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2)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찬성 이유는 일부 배경변수(신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명칭이 가정관리학과에 포함된 여러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 반대이유는 극히 일부 배경변수(신분,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학과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고, 현행 학과 정원의 30%에게 부여하는 교사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보완사항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5) 새로운 학과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은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나타

표 6. 배경변수에 따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학과명칭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학과명칭															
		가족환경학과	가족생태학과	가족자원관리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자원경영학과	가정경영학과	가정환경학과	가정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생활관리학과	생활경영학과	생활과학과	인간생태학과	소비자원경영학과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	
변수	집단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평균 F값 Scheffe	
신분	교수	3.45	2.87	3.22	2.79	2.70	2.94	3.11	3.27	3.68	2.89	3.08	2.71 a	2.88	3.52	4.04	
	재학생	2.68	2.35	2.74	2.84	2.82	3.48	2.40	2.84	3.13	2.82	3.22	3.52 b	2.69	3.07	3.63	
	대학원계학	3.50 2.14	3.15 1.96	2.79 0.50	2.80 0.53	3.08 0.37	2.85 2.36	2.28 1.21	2.55 1.46	2.90 2.01	2.71 0.15	3.02 0.41	3.67 4.32 b	3.10 1.16	3.30 0.95	3.76 0.78	
	취업졸업생	2.68	2.60	2.95	3.05	2.81	2.58	2.52	2.52	3.05	2.96	3.39	3.85 b	3.18	2.91	3.39	
	미취업졸업생	3.00	3.29	3.04	2.44	2.45	3.32	2.29	2.48	2.55	2.83	3.39	3.86 b	2.94	2.87	3.93	
전공	가족학	2.97	2.97	2.40	3.29	2.60	3.50	2.08	2.85	3.57	3.23	3.16	3.18	2.74	2.95	3.84	
	아동학	3.08	3.08	2.64	2.50	2.64	2.60	2.75	2.88	3.00	2.51	3.11	3.63	3.75	2.88	4.00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2.83 0.44	2.83 0.44	3.50 2.19	2.80 0.99	3.17 0.89	3.00 1.39	3.38 1.18	2.50 0.22	2.33 1.83	2.47 2.32	3.09 1.98	3.88 1.31	2.57 2.69	3.64 1.90	3.43 0.74	
	가정관리학	2.76	2.76	3.16	2.88	2.63	3.23	2.41	2.76	2.89	3.38	3.49	3.51	2.71	2.96	3.60	
	주거학	2.36	2.36	3.50	2.67	2.42	2.80	2.50	3.00	3.00	2.73	2.67	3.30	2.67	2.81	3.84	
	전공구분없음	2.72	2.72	2.72	2.54	3.09	3.55	2.36	2.69	2.96	2.56	3.12	3.60	3.00	2.97	3.78	
연령	20-29세	2.83	2.70	2.81	2.84	2.82	3.29	2.32 a	2.72	2.97 a	2.84	3.19	3.64	2.90	3.08	3.71	
	30-39세	3.50 2.32	3.00 0.68	3.19 1.47	2.18 1.23	2.50 0.29	2.85 0.63	2.82 4.51 abc	3.05 1.51	3.38 2.98 ab	2.82 0.01	3.36 0.08	3.04 4.74	2.74 0.67	3.63 1.68	4.06 1.07	
	40-49세	3.50	2.92	3.33	3.40	2.33	3.00	3.78 b	2.57	4.17 b	2.88	3.42	2.50	2.79	3.00	3.40	
	50-59세	2.83	3.50	4.50	2.67	3.00	2.67	4.00 c	4.50	3.00 ab	3.00	3.20	2.33	2.00	4.50	5.00	
학교소재지	서울	3.14	3.09	3.25 a	2.60	2.42	2.95	2.30	2.82	2.90	2.79	3.24	3.44	3.18 a	3.00	3.76	
	지방시	2.96 0.28	2.81 2.93	2.53 3.75 b	2.84 0.81	2.90 2.08	3.17 1.92	2.34 3.67	2.71 0.11	3.06 1.10	2.99 0.89	3.15 0.11	3.63 0.63	2.83 4.15 ab	3.08 0.45	3.79 0.27	
	지방소도시	2.9	2.39	3.00 ab	2.67	3.06	3.51	3.00	2.80	3.34 ab	2.74	3.20	3.52 ab	2.48 b	3.20	3.62	
	및 군읍면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3.02(7)	2.83(10)	2.95(9)	2.78(12)	2.77(13)	3.08(6)	2.52(15)	2.73(14)	3.06(5)	2.84(11)	3.20(3)	3.52(2)	2.96(8)	3.13(4)	3.79(1)	

굵은 글씨 :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 *p<.05 **p<.01

났다. 그 다음으로 생활과학과, 생활경영학과, 소비자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의 명칭은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학과명칭이었다. 학과명칭에 대한 선호도는 일부 명칭에서만 일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타 자유응답으로 인한 새로운 학과 명칭의 경우 첫 단어에 가정, 가족, 소비자, 인간, 생활, 주거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명칭의 후반부에는 자원, 환경, 생태, 생활관리, 경영 등의 단어들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현행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은 응답자의 배경이나 학교소재지 등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학과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정관리학과와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변경할 경우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부각되지 못하고 각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관리학과와 새로운 명칭에 대한 학회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학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려면 명칭을 변경하는 시도가 학교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각 학교마다 자신들의 학과에서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육목표에 따라 교과과정을 구성한 후 이러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학과명칭을 교수, 재학생, 졸업생들의 합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명칭변경과 더불어 교과과정을 취업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기존에 취득이 가능한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과의 명칭을 학교별로 고안할 경우 학과에 포함된 여러 전공영역을 모두 학과명칭에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

된다. 그리고 어떤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하는 문제와 전공영역을 어떤 단어로 표시해야 하는 문제는 학과의 재직교수의 전공에 따라 미묘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크리라 사료된다. 학과의 발전을 위한 학과명칭의 개칭작업이 학과 내의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학과의 정체성을 혼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관리학과와의 견해를 비교적 고르게 수렴하여 그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의의는 있으나 해석의 편의상 평균을 산출하는 등 통계적 분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학과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강혜원(1980).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18(2) : 57-62.
- 2) 대한가정학회(1982). 가정학 계열 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 1-35.
- 3) 서울대학교 가정대학(1989).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20년사*.
- 4) 옥선화(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205-208.
- 5) 유영주 · 이기춘 · 문숙재(1991).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제 91-8-104 호.
- 6) 이기열(1989).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지* 27(4) : 197-220.
- 7) 이기영(1990).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관리학의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8(4) : 30-33.
- 8) 임정빈(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199-204.
- 9) 장명옥 · 유영주(1980).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 편성 및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5 : 1-56.